



한국전력기술인협회

— 성숙한 전력기술 문화 창달이 목적 —

김 기 육
한국전력기술인협회 기술이사

1. 머리말

우리나라에 전기가 들어온지도 어느덧 한세기를 넘기고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의 전기기술자의 역사가 100년이 지났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술자격제도에 전기기술자 제도가 그 근원이 되었음은 여기서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전기기술자 단체인 우리 협회의 역사도 우리 사회의 그 어떤 단체보다도 뒤지지는 않으나,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원만하지 못한 단체는 어느 곳이나 그러하듯 우리 전력기술인도 국가사회 및 국민경제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한 바 크지만, 단체의 큰 발전은 이루지 못하여 왔다. 그러나 면면이 이어오는 동안 협회는 단체의 성격과 전통을 지켜왔으며 오늘에 이르러 이제 제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우리 협회를 소개하는 글을 싣고 우리 협회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2. 연혁 및 설립배경

「한국전력기술인협회」는 전기주임기술자의 친목과 권익향상을 위해 250여명의 전기주임기술자 자격소지자에 의해 1963년 12월 14일에 창립된 「대한전기주임기술자협회」를 그 뿌리로 하고 있다. 대한전기주임기술자협회는 1964년 8월 21일 상공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고 상공부의 위임에 의하여 전기주임기술자의 실무수습 등의 교육을 집행하는 등 전력기술인 단체의 체계와 전력기술인에 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협회 초창기 기반을 정착시켜 왔다.

1975년 국가기술자격법의 제정에 따라 전기주임기술자라는 명칭이 전기사로 개칭됨에 따라 1975년 4월 18일 협회를 사단법인 「대한전기기사협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활발한 활동을 벌여오던 중 정부의 유사협·단체 통폐합 정책에 의하여 1980년 9월 6일 「대한전기협회」에 흡수·통합되어 기사운영위원회로 활동

■ 전기관련단체 소개

해야 했던 시련의 시기가 있었으나 우리 전기기사(전력기술인)들은 전력시설물 관리에 있어서의 책임자적인 정신으로 묵묵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우리의 권익옹호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당당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1990년의 개정 전기사업법에 의해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의 영역을 확보하는 등 더욱 공고한 터전을 마련하고, 1990년 10월 27일 사단법인 대한전기기사협회를 재창립하는 끈기를 발휘하였다. 이어 우리 협회는 1990년 12월 20일 정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또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해임 확인업무와 교육업무의 지정기관으로 정부 위탁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협회의 면모를 새롭게 하고 또한 그 조직의 규모면에서 많은 성장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단법인 대한전기기사협회로서는 현실적인 발전의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경제 수준이 급격하게 향상되고 있고, 전기설비가 날로 대형화와 복잡 다양화 및 정밀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정보화 산업사회를 맞이함에 따라 효율적인 전력기술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전기설비관리담당자의 의무선임을 기업에 대한 규제라는 시각이 제기됨에 따라 전력기술인의 사회적인 역할을 확립하여야 함은 물론, 새로운 업무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성숙한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협회는 1992년 「대한전기기사협회」를 범정단체화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이를 전제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 건의(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출한 바 있으나 전기사업법의 개정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1995년 5월 전력기술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령을 제정하여 줄 것과 전기분야의 모든 기술인을 회원 대상으로 하는 전력기술인협회의 설립을 통상산업부에 건의하였으며, 곧이어 협회는 법 제정을 위한 연구팀을 구성하고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고, 통상산업부와 건설교통부간의 협의를 거쳐 의원입법으로 1995년 12월 18일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전기분야 설계 및 감리업무의 영역과 「한국전력기술
인협회」의 설립근거를 담은 「전력기술관리법」이
동년 12월 30일 드디어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협회는 전력기술인의 권익을 좀더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전력기술인과 협회의 위상을 보다 더 견고히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위해 협회에서 연구한 자료를 적극 건의함과 아울러 명실 공히 모든 전력기술인을 아우르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의 설립 준비에 박차를 기하게 되었고, 이어 1996년 10월 28일 동법 시행령과 11월 27일 동법 시행규칙이 각각 제정 공포됨에 따라 협회는 11월 29일 총회를 개최하여 사단법인 대한전기기사협회를 마감하고, 한국전력기술인 협회로 거듭 태어나게 된 것이다.

한국전력기술인협회는 (사)대한전기기사협회의 모든 권리·의무와 연혁을 승계한다.

3. 협회의 설립 목적

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22조의 설립 및 운영 근거에 따라 설립된 우리 협회는 성숙한 저력기술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 전력기술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 전력시설물의 질적 향상과
 - 전력기술인의 품위유지·업무개선·교육훈련·지도 및 관리를 통하여
 - 복리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설립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4. 협회 조직의 구성

가. 협회의 조직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회원

을 조직의 근간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와 20개 지부로 되어 있다.

협회는 대한전기주임기술자협회와 대한전기기사협회의 회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던 자와 설계·시공·감리 및 전기안전관리 등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하는 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취득자와 학·경력자 등 50만 모든 전력기술인을 회원의 대상으로 하며, 1997년 5월 10일 현재 3만여명이 가입되어 있다.

협회의 조직은 총회, 이사회, 위원회 및 20개 지부와 집행사무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협회 총회는 협회 임원 및 지부장과 지부별 총회에서 선출되는 200인 이내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하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회장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집행사무기구는 비상근 회장을 중심으로 상임감사, 관리이사, 기술이사 등의 상근임원과 4실 12과와 감사과 및 20개 지부 사무국 등의 부서에 100여명의 직원과 상근연구원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그 조직표는 별표와 같다.

한편 협회의 현 임원진을 살펴보면, 권용득 회장(명신종합전설(주) 대표이사), 장운격, 강명식 부회장이 있으며, 이사로는 이영수(통상산업부 수화력발전과장), 국상훈(조선대 명예교수), 장하린(금호전력(주) 회장), 류재관(동서증권(주) 시설관리팀장), 협홍기(한국전기관리(주) 고문), 천봉쌍(건울산전 대표), 안용승(안일농산 대표), 김영문(삼성물산(주) 고문), 김인석(삼화기연(주) 대표이사), 유석구(한양대 교수), 오재현(협회 관리이사), 김기욱(협회 기술이사), 감사 오제균(선진전설(주) 부사장), 장수덕(협회 상임감사) 등 회장 1人, 부회장 2人, 이사 12人 및 감사 2人으로 되어 있다.

또한 협회는 회원의 참여에 의하여 운영되는 회원운동체(단체)이기 때문에 총회와 이사회를 비롯하여 분야별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인사

위원회, 법·제도위원회, 기술개발위원회, 전기안전관리대행위원회, 기술안전위원회, 공사·설계·감리위원회, 교육훈련위원회, 공제위원회, 회관건립위원회 등 정관 및 위원회규정에 의한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또한 필요에 따라 교육개발전문위원, 출판전문위원, 사고조사전문위원, 기술지도전문위원등 비상근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함으로써 협회 업무와 활동의 원활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소속회원의 규모에 따라 1급, 2급, 3급 지부로 구분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각도의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지부의 조직은 소속회원으로 구성하는 지부총회와 지부장, 부지부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각 지부별로 사무국을 설치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며, 업무별·지역별 협의회가 구성되어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전국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협회 현안사항을 전달하기 위하여 전국지부장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 회의는 협회 회장이 주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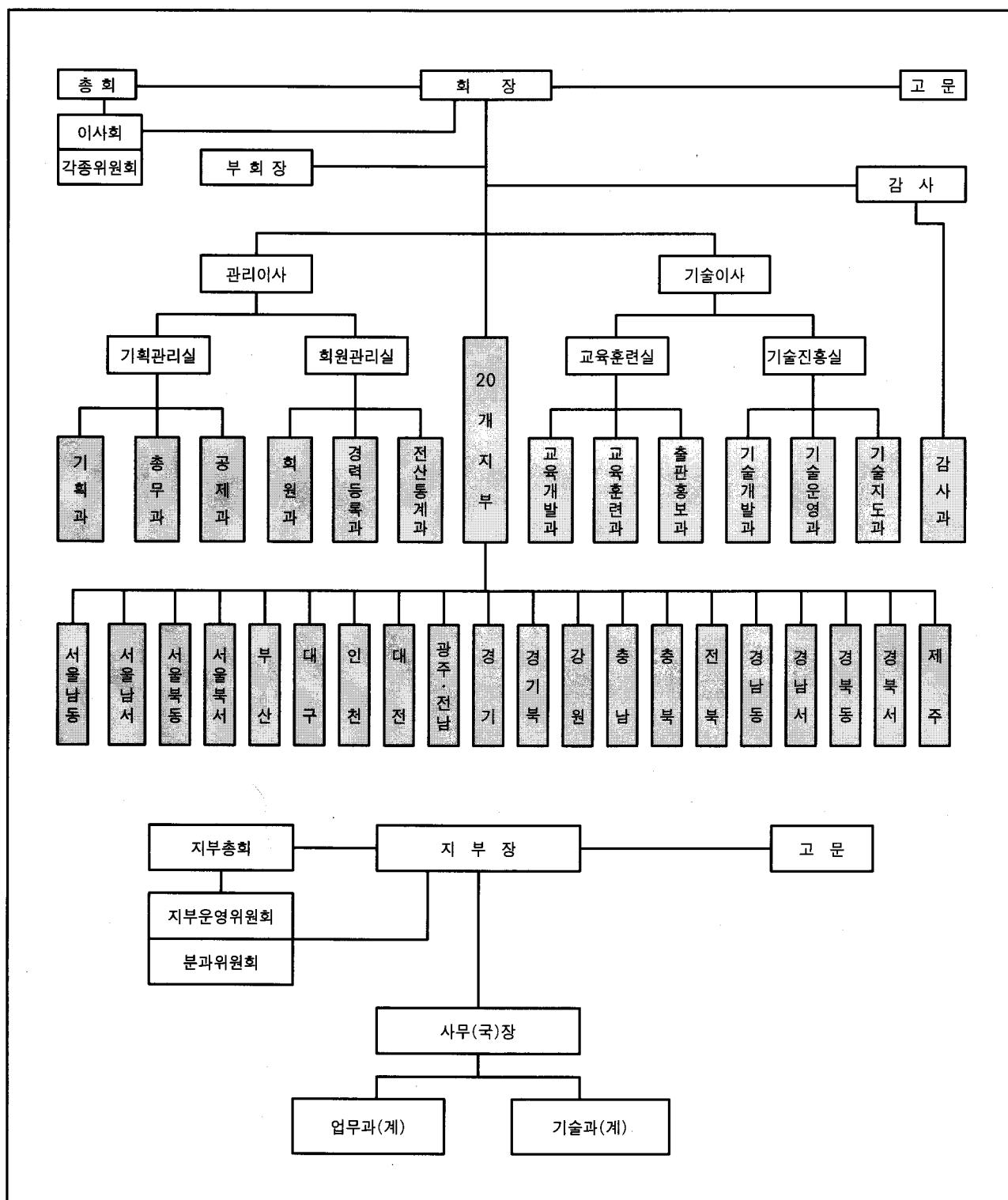
나. 회원 가입대상 및 회원의 종류

(1) 회원가입대상

- ①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된 자
- ② 전력시설물 설계업자 및 그 업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
- ③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업자와 그 업체에 소속된 감리원
- ④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업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
- 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 ⑥ 위 ①~⑤ 이외의 전력기술인으로서 협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자
- ⑦ 협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업체 및 단체

■ 전기관련단체 소개

기 구 표



(2) 회원의 종류

- ① 직무회원 : 위(1)의 대상 중 ①, ②, ③ 및 ④에 해당하는 회원
- ② 일반회원 : 위(1)의 대상 중 ⑤에 해당하는 회원
- ③ 준회원 : 위(1)의 대상 중 ⑥에 해당하는 회원
- ④ 특별회원 : 위(1)의 대상 중 ⑦에 해당하는 회원

4. 협회 주요사업 및 부서별 업무

가. 협회 주요사업(전력기술관리법 제19조 및 협회정관 제4조)

- (1) 전력기술인의 경력확인
- (2) 전력기술인 · 설계사 및 감리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3) 전력기술에 관한 조사 · 연구 · 개발 · 출판 및 홍보
- (4) 전력시설물의 진단 · 기술지도 및 사고조사 분석
- (5) 부설 기술연구원의 설치 운영
- (6)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 · 해임 신고 업무
- (7) 회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의 보장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한 공제사업
- (8) 회원 관리 및 전력기술인의 권익증진 및 응호를 위한 사업
- (9) 통상산업부 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5. 향후 계획

가. 전력기술 개발 및 관리

(1) 전력기술이 타 기술분야에 비하여 기술적인 정체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전력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개발을 적극 권장하여야 할 것이며, 신기술개발자를 우대하고 신기술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

여 노력할 것이다.

(2) 전력기술 및 전력시설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술기준이 아닌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영역별로 구분된 전력기술기준, 즉, 전력시설물 설계기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수행기준, 전력시설물 시공기준 · 검사기준 및 전력시설물 유지운용기준 등의 제정 연구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는 전력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운용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나. 전력기술인관리

국가 산업 기술 및 경제 발전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전력기술분야의 설계 · 시공 · 감리 · 유지운용 · 보수 및 행정과 유관업무 등에 종사하는 5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전력기술인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당업무 종사자만이라도 향후 2년내에 경력신고를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협회는 등록 · 신고된 기술인력에 대한 취업 · 퇴사 · 기술자격 취득사항 등의 경력이 전문 업무영역별로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를 개발하고, 전산장비를 확충하며, 아울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문분야별 전력기술인의 수급동향 등 기술인력 관리정책에 부응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나아가 고등학교 이상의 전기과를 졸업한 모든 전력기술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발하여 나아갈 것이다.

다. 전력기술인 교육훈련

- (1) 전력기술인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내실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협회 전력기술교육원을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것이며,
- (2) 관계 법령에 의한 교육인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직무교육 · 전력기술인교육훈련 및 감리원교육훈련 등을 더욱 가치있는 교육으로 발전시키고, 보다 저렴한

교육비로 교육훈련 참가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연구·노력할 것이며, 교육시설이 확충되면 년중 다양한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재교육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모든 전력기술인에게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라. 신고수리 업무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해임 신고수리 업무 및 감리 원배치 신고수리 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여 전력기술인의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 이중취업과 자격대여를 방지함은 물론 제도개선을 추구하여 전력기술인의 사회적인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연구할 것이며, 전력기술업무가 설계·시공·감리·유지운용 및 관리 등 모든 분야에서 실명화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것이다.

마. 기술지도 및 지원

회원공동체인 협회라는 조직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협회를 중심으로 한 회원 상호간의 기술지원과 지도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은 물론 조직적으로 지원과 지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전력기술에 관한 업무영역내에서는 선의의 견전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유관 업계에 의한 업권 침식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바. 공제사업

설계·감리업 등록시 출자되는 출자금과 직무회원의 출자금 등으로 회원의 전력기술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자금융자 등의 공제사업을 전개할 것이며, 향후 공제사업 참여 업역을 확대하여 공제사업기금을 더 확보하여 전력기술인들이 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나아갈 것이다.

6. 맷음말

우리나라 근대 기술자격 직종의 시초로 태동한 전력기술분야 자격의 업무가 한세기를 지나오면서 기술적인 발전과 더불어 제도적인 부침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는 동안 협회도 많은 시련과 굴곡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그 시련과 아픔은 전력기술인에게 더욱 단단한 결속력을 가져다 주었고, 국가 산업의 동맥인 전력시설물을 보다 완벽하게 설계·시공하며, 보다 철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가와 기업의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여야겠다는 결의를 더욱 단단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 전력기술인은 더욱 더 철저한 업무의 이행과 국가와 국민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국민의 전력기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꿔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끊임 없는 연구와 노력과 희생봉사를 우리들 스스로가 이행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역할을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홍보하고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우리 전력기술인이 끊임없이 발전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협회는 전력기술인이 맡은 바 전력기술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와 국민경제 및 기업의 발전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하여 전력기술인의 기술과 자질향상을 기하는 데 그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끝으로 협회에 대한 모든 회원과 전력기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또한 새로운 마음과 정신자세로 21세기에 없어서는 아니될 전력기술인이 되어 주시길 바라면서 국가와 국민들에게는 우리 전력기술인들이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국민생활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며, 전력기술인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